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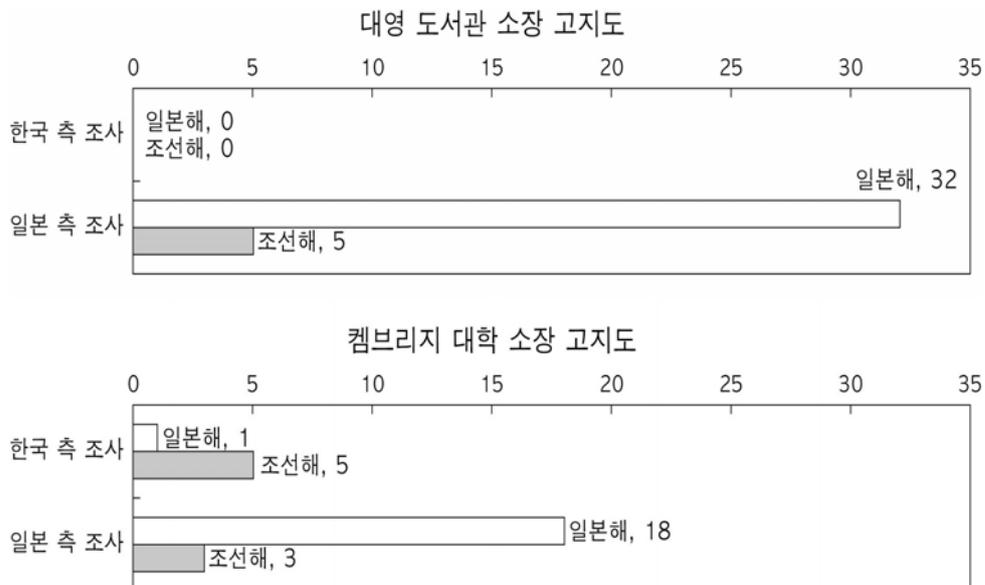
일본해 호칭 문제(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) 개요

2003년 9월

1. 일본 외무성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,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중, 1801년부터 1861년 사이에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일본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현지 조사하였다. 이것은 “[일본해]라는 명칭이,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서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되어 왔다”라는 일본의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함이었다.
2.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한국 측의 “[일본해]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,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”라는 주장이 있다.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,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에 관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를 들고 있다.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, 1801년부터 1861년 사이에 발행된 지도에 대해서는, 대영 도서관에는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가 1점도 없었으며(주 1), 캠브리지 대학에는 6점 뿐(그 중 5점이 [조선해], 1점이 [일본해])인(주 2) 것으로 되어 있다.

주 1: Lee Ki-suk, Kim Shin, Soh Jung-chul, “East Sea in World Maps”, The Society for East Sea, (Seoul:2002) pp.95-112

주 2: ibid.pp.113-126
3.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실시한 양 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, 한국 측의 조사가 완전히 불충분하였음이 판명되었다. 즉, 실제로는 1801년부터 1861년 사이에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 중, 대영 도서관에는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가 37점 보존되어 있었으며, 그 중에서 [일본해]라고 표기된 지도는 32점이었고, [조선해]라고 표기된 지도는 5점인 것이 판명되었다. 또한, 같은 시기에 발행된 지도 중, 캠브리지 대학에는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가 21점 보존되어 있었으며, 그 중 [일본해]라고 표기된 것이 18점이었으며, [조선해]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3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.



4. 일본 측의 조사를 반영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.

(1) 일본 측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, 18 세기 말 이전의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으로서 [일본해], [조선해], [동양(오리엔트) 해](주 3)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(일본 외무성 작성 팜플렛 “Sea of Japan” 참조).

(2) 이번 일본 측 조사에 의하면, 18 세기 말 이후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서는 [일본해]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(대영 도서관 소장 고지도에서는 86%에 해당하는 32 점이,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에서도 86%에 해당하는 18 점에 [일본해]라고 기재되어 있었다).

(3) 따라서, “[일본해]라는 명칭은,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 있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8 세기 말부터 19 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 정착한 것이다”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확인되었다. 또한, “[일본해]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,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”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.

주 3: 이들 지도에 사용된 [동양(오리엔트) 해]라는 명칭은 [서양해]에 대한 [동양해]라는 의미로서, 이를 [동해]와 같은 의미로 간주하는 한국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.